

## 교회소식

-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고들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더욱 예수를 바라봅시다.  
- 자기를 돌아보아 지키고 씻고 튼튼히 합시다.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 성숙하고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법을 배우갑시다.  
- 예배와 증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 오늘은 세광교회 창립 1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삼아 주실 소망을 가져봅니다.
- 매일성경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에게 알려주십시오.
- 보내주신 헌금은 4월말까지 모아 재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 예배 직후 Zoom 화상모임을 통해 교제하겠습니다.  
미팅 링크: <https://us02web.zoom.us/j/89014784563>  
미팅 ID: 890 1478 4563  
전화번호: 1 646 876 9923
- 12시부터는 학생들과 영어권회중을 위한 영어예배를 시작합니다.  
Pastor Edwin will be streaming a service in English at 12:00pm.  
The service will be streamed via Zoom.  
Meeting ID: 939 020 5125  
Password: Sk

##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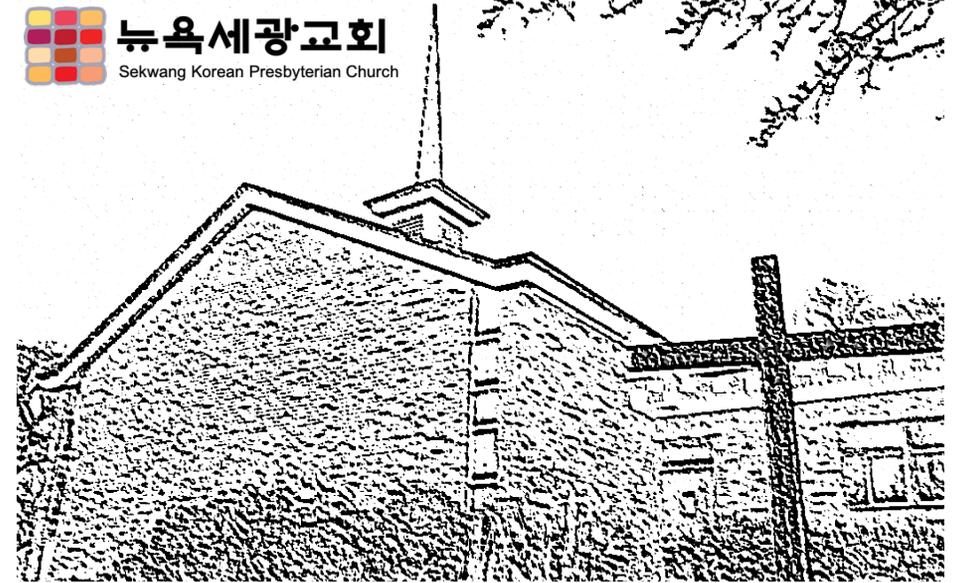
4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6호

2020년 4월 26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80장(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There is no Name so Sweet
다함께	
헌금 및 감사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3:11-17 Matthew 3:11-17
인도자	
설교 Sermon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183장(통172장)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지난 주 주일 말씀

####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마태복음 3:1-10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유일한 메시지였고, 단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심판과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은 복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두렵고 부담스런 소식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동화같은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방에서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따라 심판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대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길에서 돌이켜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소식은 복되고 소망된 소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왔으나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는 자기들 나라에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한다는 소식은 두렵고 거북한 소식이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롭고 만족한데 왜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회개는,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한 즐거운 준비처럼 반가운 일입니다. 내 나라를 떠나지 않으려니 회개가 부담스런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의인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능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기꺼이 죄의 길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후회할지라도 “나는 모든 일에 죄인입니다”라는 두루뭉실한 회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행동이 비추임을 받고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을 용서하소서!” 간절히 회개한 것이 또다시 담대히 죄를 짓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자백할텐데, 이것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빛 비추어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겉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여 돌이켰다면, 삶이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힘을 다해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남들 앞에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게 전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변화된 심령에만 맺혀집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Memo>